



서를 즐겼다.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도 “일일부독서 구중 생형극(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)”이라 “하루라도 책을 읽지 못하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친다”라고 했다. 정치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수상 처칠은 학교공부는 못했지만 책읽기를 좋아해 책 읽은 시간이 없으면 만지기라도 했다고 독서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다.

문득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서에 심취한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해진다.

1억1만3천 번의 책을 읽은 독서광, 지금으로 말하면 독서의 달인이 되겠다.

조선중기의 시인 김득신(金得臣 1604~1684)이 그 주인공이다.

김득신의 독서는 고문삼십육수독수기(古文三十六首讀數記): 누가 어떤 책을 몇 번 읽었는지 꼼꼼히 기록한 책) 에 따르면 1634년부터 1670년까지 36년간 사기(史記) ‘백이전’을 1억1만3천 번 읽었다고 전한다. 지금으로 하면 11만3천 번에 해당한다.

▲노자전, 분왕, 벽력금, 주책, 능허대기, 의금장, 보망장은 2만 번 ▲제책, 귀신장, 목가산기, 제구양문, 중용서는 1만8천 번 ▲송설존의서등은 1만 5천 번 ▲연희정기 등은 1만3천 번 ▲용설은 2만 번 ▲제악어문은 1만4천 번 등 모두 36편을 1만 번 이상 읽었다.

만 번 이하로 읽은 것은 아예 꼽지도 않았다고 하니 김득신의 독서력은 과히 존경할 만하다. 김득신은 당호를 억만재라 지은 것도 글자 뜻 그대로 글을 읽을 때 1만 번이 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.

김득신은 머리가 너무 나빠 열 살에야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. 또 지적장애를 가져 지혜가 부족하였는데도 외워 읽기를 몹시 부지런히 하여 독서록에 천 번을 읽지 않은 것은 기록에 올리지도 않을 정도로 책읽기를 좋아해 당대의 영웅이 되었다.

이 가을에 김득신 선생이 생각나는 것은 마음의 양식을 쌓을 만한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.

2008년의 가을이 왔다.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매년 이맘때면 되뇌인다.

그렇게 말만 하고 훌쩍 훌쩍 넘겨 버리는 이 가을이 올 해에는 아깝다는 마음이 든다.

정작 책 한 장 넘기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바쁜 일상이지만, 독서광 김득신 선생을 우러러 이번에는 책 한 권 읽고 옆 사람에게 넘겨주어야겠다.

올 가을 만큼은 책 한 권 겨드랑이에 끼고 걸어 다니는 멋진 한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.

<편집자 주>

